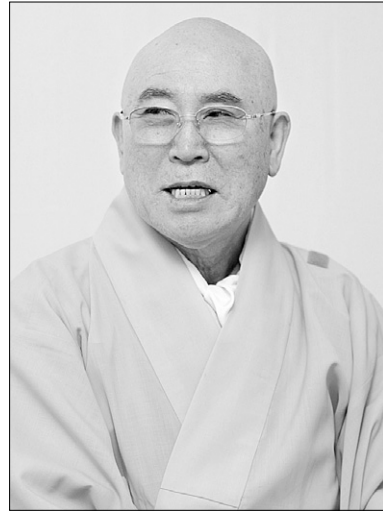


■인터뷰-원로의원 종하 스님

“장기 대응 전략·전술 있어야”

2500여 조계종 사찰은 8월 20일(음력 7월 초하루)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해제를 위해 전국 동시법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19일 관악산 관음사에서 만난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관음사 주지·사진은 사찰의 사유권과 관리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단의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종하 스님은 “8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린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 의 연장선상에서 사찰 땅의 자연공원 제의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각 부처를 이해서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공원 해제 후 전통사찰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이 공포되기 전, 입법에도 기간이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불교계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이 건보부, 환경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를 뛰어다니며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해요. 5개 이상 관계부처에서 합의가 돼야 국회의 통과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단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일회성 시위 보다는 2~3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법률 검토와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소통할 전담팀을 갖춰야 합니다.”

1973년 관음사 주지에 부임한 종하 스님은 당시 도량이 그린벨트에 묶여 법당 증축 등 오늘과 같은 사격(寺格)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총무원에서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당시 그린벨트 관계법을 달달 외을 정도로 공부한 후 건설부 등 관계 공무원들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펼쳐 그린벨트 지역의 사찰 건물 증축이 이전 규모의 100%까지 완화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뭐든지 사무질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총무행정에 대해 사무치기 연구하고 입법으로 일에 매진한다면 그게 바로 이판(義判)입니다. 자기 일에 투철하면 이판(義判)이 한 판입니다. 애증심과 과감한 추진력, 전문성을 갖춘 총무행정 전문가들이 포교와 승가교육, 수행을 뒷바라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2월 치러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종하 스님은 오는 10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원로의원스님들과 주요 교구본사스님들, 중진 중앙총회의원스님들로부터 “종단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해달라”는 광범위한 권유를 받고 있는 스님은 “돈·파벌선거 하면 종단 문 닫아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스님은 “원로·중진 스님들의 뜻이 간절해 그런 쪽(축마)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종교 벽 넘어 불교에 무한 애정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불교사상에 매료... 전통문화 관점서 최대한 지원

8월 18일 서거한 김대중 前 대통령은 임기 중 불교를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교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 前 대통령은 가톨릭 신도였지만, 어떤 정치인 보다도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8월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김대중 前 대통령 내외. 오른쪽은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장인 보문 스님 영향 불교 애정

김 前 대통령은 1957년 토머스 모어라는 영세명을 받았지만, 가톨릭을 우대하거나 이웃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경우가 일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넘어, <안야심경>을 외울 정도로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졌다. 그 이유는 장인이었던 보문 스님의 영향이 컸다.

김 前 대통령의 장인으로 첫 번째 부인 차영애 씨의 부친인 보문 스님은 환속 후 목포에서 인쇄소 등을 운영하며 사위를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前 대통령은 보문 스님을 통해 입적한 백양사 만암 스님과 그 상좌 서운 스님(조계종 종정역임과도 인연을 맺어 정계입문 후에도 몇 차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前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의 의

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할 때 원호 스님의 저술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때부터 불교의 보살정신과 만유불성(萬有佛性)의 평등사상에 깊이 매료됐으며 이를 현실정치에서 자유와 인권, 평화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애썼다.

■대선 불교 10대 공약 처음 제시

김 前 대통령은 1997년 제 15대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불교 공약’을 발표해 불교계에 힘을 실어줬다. 김 前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예방해 △종교정책 실현

△불교관련법 재·개정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문화재 보존 △불교전통문화의 복원에 최대한 지원 △국립불교박물관 건립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남북불교교류 지원 확대 등 불교계 10대 공약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비용 지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등 예산 지원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 법 제·개정을 원만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불교교류 기여로 만해대상

김 前 대통령의 2002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한반도 화해모드 조성은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텄다.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북한 불교문화재의 복원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불교종교인들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로 인해 김 前 대통령은 2003년 제7회 만해대상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61년 인제군에서 조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연으로 만해마을 건립을 지원하기도 한 김 前 대통령은 당시 수상소감을 통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해 온 만해 스님을 존경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범불교대회 1주년, 과제는?

범불교대책위, 24일부터 사진전·27일 세미나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풍조를 위해 2000년 불자가 한목소리를 냈던 범불교대회(이하 범불)가 8월 18~19일 보은 법주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해종 스님의 법문, 발우공양, 참회정진 108배, 새벽 숲 산책, 참가자 전원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손태진 선수와 비록한 배드민턴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이재진, 테슬링 동메달리스트 박은철 선수 등 130여 명의 선수와 지도

유정책연구원 대표(건강한 사회, 바람직한 종교문화), 조성택 고려대 교수(더불어사는 세상, 붓다의 희망찾기)가 참여한다. 승원 스님은 “범불교대회 1주년이 지난 지금도 공직자 종교편향은 여전하다”며 “한국이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 만큼 범불교도대책위는 중단과 재이행단체 등을 결집해 우리 사회에서 종교편향을 근절시키고자 지속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승원)는 8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8·27범불교대회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24일부터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범불교대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세미나 입제식에는 前 범불교도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원화 스님(종정예하상) 등 표창을 받고,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사이버 감시요원 20명이 위촉장을 받는다.

발제자로는 중앙총회 종교차별특위 위원장 진화 스님(8·27범불교도대회 평가와 과제, 박광서 종교자

불교수행으로 마음다스려

체육인불자련, 법주사서 하계수련회

체육인불자련(회장 이기홍)이 8월 18~19일 보은 법주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해종 스님의 법문, 발우공양, 참회정진 108배, 새벽 숲 산책, 참가자 전원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손태진 선수와 비록한 배드민턴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이재진, 테슬링 동메달리스트 박은철 선수 등 130여 명의 선수와 지도



8월 18~19일 법주사에서 열린 체육인불자련 수련회.

자가 참가했다. 이기홍 회장은 “성적, 부상에 따른 좌절과 슬럼프에는 선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극복해야 하는데 불교적 수행이 이 점에서 가장 적합하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선 공부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 매 경기마다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면 10월 20일 전국체전, 2010년 아시안게임 등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종성 스님 임명

동대 새 법인사무처장

조계종립 동국대(이사장 정연) 신입 법인사무처장에 종성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사무처장 종성 스님은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7년 법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30년간을 성단했다. 현재 제14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다. 조동섭 기자

청소년교리경시대회

지도위원 위촉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 제1회 전국 청소년교리경시대회 지도위원이 위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지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자승 스님, 도후 스님, 성호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혜자 스님(불교신문 사장)이 참석했으며 동대부속고등학교, 동대부속중학교, 은석 초등학교 등 총 21명의 전국 초·중·고 불교종립 학교장이 위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젊은 불자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시대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동국대·금강대·위덕대 입학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시대회 접수기간은 9월 5일까지다. (02)723-6165-6

이나은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ist elderly care center. Title: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Content: Buddhist elderly care center Samcheonsa and Indokwon are recruiting elderly people. Features: Buddhist specialized education, 150 staff, one-stop services. Contact: 02)385-8205, 02)3156-7500.